

시무식 신년말씀

올해가 담고 있는 푸른 말의 의미처럼 종무원 모두가 한해의 시작을 맑은 기운으로 힘차게 시작하기를 기원합니다.

돌아보면 지난날이 항상 미흡하고 아쉽지만 우리 스스로가 자비로웠고 넉넉했기에 많은 일들을 원만하게 감당해 왔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마음은 새해에도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마주하는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서로의 동료입니다. 업무에 임하면서 서로 다투고 논쟁하기도 하지만, 이는 같은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의 수고이고 더욱 잘 해나가겠다는 과정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는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으니, 동료의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지혜도 갖추기 바랍니다.

이제 새해와 함께 34대 집행부의 구체적인 과제들을 하나둘 정리해 나가면서, 바로 우리로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야 합니다. 무겁고 힘든 과제들 앞에서 움츠리지 말고 자신감으로 서로를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는 것만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계획하고 얼마만큼의 정성으로 실천할 것인가가 진정한 새로움이라는 것을 종무 현장에서 잘 느껴보기 바랍니다.

현시대가 이해하는 불교의 존재가치는 바로 자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이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평화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처님은 전법의 길을 나선 것이며, 올 한해도 우리 모두는 그 길 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종도와 불자들에게 웃음을 실어 나르는 푸른 말이 되어 힘차게 한 해를 달려 나갑시다. 사회와 불자의 축복속에서 한해의 결실을 이루고, 다시 우리가 이룬 성취가 모든 대중에게 친절함과 행복으로 나누어지기를 발원합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 모두가 두루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